



지난 18일 개장한 무등산 국립공원 동적골 톨립 꽃동산. 등산객들이 형형색색의 톨립을 바라보며 산책로를 걷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 나와 무등산 이병섭 광주환경교원협 대표 (전남공고 교사) 환경지킴이로 보낸 '열정의 30년'



이병섭(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씨가 지난해 무등산 사랑 청소년 환경학교 입학식에서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무등산을 곁에 두고 살아온 지 50년이 넘었다. 광주 방림동에 살았던 나는 초·중·고교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등산을 수없이 오르내렸다. 무등산은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내가 바라본 무등산의 모습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1960년대 초반 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부 시민들이 광주천변 인근에서 무등산서 벌목해온 나무를 땀겨름으로 팔았다. 당시 광주 도심에서 무등산의 나무를 쌓아놓은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무등산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더욱 황폐화됐다.

훼손되는 무등산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나는 1982년부터 학교에 근무하면서 환경영무를 담당했고, 이를 계기로 학생 환경동아리까지 만들었다. 이는 무등산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1994년에는 무등산의 오염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지표식물인 지의류(地衣類) 연구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무등산 일대의 지의류종 분포를 학생들과 함께 연구한 끝에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상도 받았다. 이러한

일로 무등산을 수십 번 올라갔고, 지의류를 채취하다 떨어져 죽을 뻔했던 순간도 있었다. 또 1995년에는 환경보호에 뜻을 둔 광주 시내 교사들과 함께 '무등산 사랑 환경교원협의회'를 구성, 무등산 보호운동에 힘을 보탤 때, 교사의 특성을 살려 그해 7월부터 '제1회 무등산환경교실'을 개설하고, 1999년까지 5년 동안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했다.

2001년부터는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체 내에 '무등산 사랑 청소년 환경학교'를 개설해 ▲중심계곡·원효계곡 일대 자연생태 탐방 ▲역사문화유적탐방 ▲지리산 국립공원 자연생태탐방 ▲광주권 문화예술탐방 ▲환경지킴이의 역할과 자세 등을 교육했다. 환경학교는 3000명이 넘는 초·중·고교생들이 수료했으며, 대학생봉사단과 학부모까지 합한다면 훨씬 많은 인원이 환경학교와 함께했다.

특히 환경학교는 그동안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비해 지리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했으며, 지난해 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큼 무등산의 품격에 맞는 보존 프로그램 등도 준비중이다.

무등산 갤러리 배동신 작 '무등산' (1984) 종이위에 수채 (40 x 30 cm)

고(故) 배동신 화백의 아들 칼럼리스트 배한성씨는 "아버님은 고향의 명산 무등산과 목포항, 정물을 즐겨 그리셨다. 항상 무등산을 산책하고 바라보면서 다른 산 보다도 굴곡이 순하고 안정된 모습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다"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미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 걷기만 해도 역사·문화·생태 교육 절로 광주천·너릿재·동적골...명품길 변신중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 ⑧ 지자체의 노력-(1)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증심사 '스토리텔링'

광주천~너릿재 산책로 연결 추진

동적골 '꽃동산'엔 탐방객 줄이어

광주시 동구가 무등산 국립공원 지역을 시민 휴식·탐방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

광주시 동구는 광주의 산 '무등산'을 국립공원의 위상에 걸맞게 도심 주변 자연경관과 문화 생태 등 지역과 마을을 이어 무등산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연 자원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굴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조성해간다는 복안이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 걸쳐있는 국립공원 무등산의 총 면적 75,425km<sup>2</sup> 중 광주 동구는 20,789km<sup>2</sup> (27.6%)를 차지하고 있다. 동구는 이 가운데 예산 8000만 원을 들여 무등산자락 다남길(지산유원지~학운초교~동적골 구간)에 스토리텔링 공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말 완공예정이다.

이곳엔 무등산의 역사와 의미, 등산로·산책로 등 무등산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담긴다. 동구는 또 광주천(선교동 마을정자)과 너릿재 명품 숲길 간 연결산책로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예산 4억7000만 원을 투입해 길이 125m·너비 3m의 연결산책로를 조성해 물과 숲을 연결하는 쾌적한 공간 및 하천 주변 숲길 조성으로 기존 산책로와 전혀 다른 산책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무등산 등산로 들머리인 화동 삼거리 일대 정비 계획도 마련 중이다. 이 지역은 2688㎡ 면적에 유흥업소 11개 업소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이 일대 유흥가와 나후 건물을 철거한 뒤의 재료에서 남문로로 가는 일방로를 폐쇄할 계획이다.

또 이미 조성된 소공원과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활용방안을 모색한 물론 이 지역에 백범 김구 기념관이나 무등산 탐방센터 등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8일 동구는 동적골 톨립 꽃동산을 개장했다. 동구 운림동 현타사 주변 3400㎡ 공간에 톨립·아펠톤 등 7종·10만 그루를 심었다. 28일까지 개장,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동구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동적골 주변에 철쭉 12만 그루와 꽃잔디 2만3000 그루 등을 심어왔었다.

특히 무등산자락에 '다남 길'도 만들었다. '다남 길'은 지산유원지~학운초교~동적골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길이 13km·너비 1~2m다. 이 산책로는 지난해 안전행정부 주관 '우리 마을 녹색 길 최고 10'에 선정됐다.

또 무등산 진입로 주변 숲길 조성사업도 끝마쳤다. 남광주사거리~홍림교~증심사 주차장 주변에 가로수와 쉼터, 산책로 등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무등산에 오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도심 속 숲'을 조성한 점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너릿재 명품 숲길과 동적골 산책로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조성돼 있다. 동구는 이를 토대로 동구 브랜드와 이미지 제고, 경제적 효과 등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함에 따라 상징성과 지위가 상승했다"며 "국립공원의 격에 맞는 공원계획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등산을 명실상부한 국립공원으로 가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 후 타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수가 평일 30~40대, 토·일요일 100~150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립공원 승격 전 평일 1~2대, 휴일 20~30대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